



Ending Story

in Vietnam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난 6월 이야기
소소하지만 특별한 베트남 5기 아띠들의 이야기 :)

6월 5일 환경의 날

환경의 날을 맞이해
라운아띠 베트남팀은
워크캠프에 참여한
싱가포르 학생들과
350ppm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HOW TO CAMPaign?

1



쓰고 남은 천을 바느질해서 350ppm을
새길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

2



싱가포르 학생들을 만나 환경의 날과
350ppm에 관한 의미를 알게 한다!

3



작은 천에 자신이 350ppm을 지킬 수
있는 실천사항을 하나씩 적어본다!

4



실천사항이 적힌 천을 350모양에
따라서 하나씩 바느질 한다!

5



완성 후 사진을 찍고, 자신이 적은
사항을 실천에 옮긴다!

TALK ABOUT

저희는 캠페인을 진행 하면서 베트남YMCA에서
남은 천을 재활용 해서 바느질 할 판을 만들고
주황색 천을 잘라서 실천사항을 적은 후 바느질로
연어서 캠페인에 의한 소비를 최소화 시키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효율적인
캠페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350ppm

시골 벤째로 workcamp 떠나요 ~

우리 팀은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약 일주일 간 베트남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벤째주로 워크캠ป์를 떠났다. 베트남 YMCA 에서는 다른 나라 학생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워크캠ป์를 여는데, 이번 워크캠ป์의 참가자는 싱가포르 화정고등학교 학생들 29명과 베트남 봉사자 4명과 함께하게 되었다. 워크캠ป์의 주된 활동은 학교시설 개보수 작업,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기, 마을 주민들과 요리하는 것이었다. 평소 호치민 도시나 동나이 공단지역에서만 활동을 했던 우리 베트남 팀원들이 평소 생활해왔던 곳과는 다른 시골 지역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여서 즐거운 1주일이었다.

활동 1. 학교 개보수 작업



우리가 활동한 학교는 건물 하나에 반이 3개가 있는 작은 학교였다. 거기서 우리의 임무는 건물 내외부 페인트칠을 새로 해주고 학교에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적은 인원이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다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다. 힘이 들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팀원이 싱가포르, 베트남 친구가 땀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다시 붓을 잡고 삽을 들게 만들었다.



활동 2.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주기

학교 개보수 작업을 계속하면서 남는 교실에서 싱가포르 친구들 5명과 베트남 친구 1명 우리 팀원 1명이 오전, 오후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었다. 싱가포르 친구들이 준비해온 수업이 있었기에 우리 팀원은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고 아이들이 모르는 영어 단어 뜻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주고 아이들 옆에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앞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옆에 앉아서 해석해주며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 3. 마을 주민과 요리시간

점심, 저녁밥은 학교 옆 마을 주민 분 댁에서 먹었다. 학교 개보수 작업을 하다가 점심, 저녁 시간 2시간 전에 학교에서 나와서 마을 주민 분 댁에 가서 싱가포르 친구 3명과 우리 팀원 1명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었다. 베트남어를 할 줄 모르는 싱가포르 친구들과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마을 주민 분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드리며 이야기 꽃을 피우며 마을 주민들과 싱가포르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에피소드 1. 외국 친구가 생기다니

베트남에 살면서 베트남 친구들도 사귀었지만 이렇게 일주일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내며 하루 활동이 끝나면 또 호텔에 모여서 잠옷 차림으로 놀다보니 전과 다르게 더 친한 사이의 친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베트남 봉사자들 중에는 3월에 우리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준 베트남어 선생님도 있었고 베트남 YMCA 대학생 직원도 있었다. 이전에는 사실 친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아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

다른 모습의 친구가 되었고, YMCA에서 인사만 하고 지나갔던 대학생 직원 이자 3,4기 코디네이터였던 Toan도 일주일 뒤 다시 만날 날짜를 잡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친구들과는 처음엔 언어의 장벽으로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활동이 끝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일주일 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지만 그들이 귀국하러가는 마지막 날에는 어찌나 아쉬운지..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 외국친구라는 생각이 아쉬움을 더했던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시 싱가포르에 혹은 그들이 한국에 놀러왔을 때 만날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으로 약속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에피소드 2. 역시 인심은 시골 인심

온종일 벽을 벗겨내고 페인트칠을 하다가 지친 우리 팀원! 코코넛이 유명한 지역이기에 휴식 겸 코코넛을 사러 나갔다. 마을로 들어갈수록 가게는 보이지 않고 나무 기둥에 긴 나뭇잎만으로 엮어 만든 베트남 전통가옥인 가정집들만 보였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고 혹시 코코넛이 있냐고 얼마냐고 물으니 가격을 말씀해주셨다. 아주머니의 남편 분께서 코코넛을 따주시는 동안 집안으로 들어가 14살 딸아이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였다. 여기까지 온 걸 신기해하시면서 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우리에게 호감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코코넛 3개를 받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덤으로 마트에서 비싸게 팔던 자몽 같은 열대 과일까지 얹어주시는 거 아닌가! 돈을 드리겠다고 해도 한사코 거부 하시던 아주머니, 죄송해서 감사하다 말을 드리고 다음날 과자 한 다발을 들고 다시 찾아뵙다. 과자만 드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또 코코넛과 자몽을 한 다발 얹어주셨다.



에피소드 3. 워크캠프 참가자들과 여행을 떠나요

봉사활동은 월요일에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6일만에 마무리 짓고 일요일, 월요일 이틀간은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메콩 강에서 전통 나룻배도 타보고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했던 구찌터널에도 들어가 보았다. 여행을 하면서 베트남 말을 하지 못하는 싱가포르 아이들이 기념품을 살 때 흥정도 해보고 공심적인 여행이 끝나고도 같이 호치민에 돌아와 야경을 구경하기도 했다. 활동을 다 끝난 후에 여행을 통해 좀 더 참가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LÀM VIỆC Ở CÔNG TY HỢP TÁC TRẺ

여공들과 같이 일하다!

Công ty Hợp tác trẻ ?

베트남 YMCA 의 다른 이름이다. 현재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NGO 기관 등록이 불가하여 Compay(Công ty)로 등록 되어 있고, 이곳은 옷을 만드는 회사이다. 그리고 산하 기관들로 흥안유치원, Hope school, Vocational Orientation Club for disabled youth, orphanage in Da lat 등이 있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NGO 의 moto 를 가지고 운영 중이다.



드디어 3월부터 베트남 YMCA 건물에 갈 때면 만날 수 있었던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의 어린 친구들과 일하는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까지 우리의 하루 활동이 끝난 후에는 항상 YMCA 건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다. 그 때마다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아 준 덕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3월 달 베트남어 공부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친구들과 일하게 된다니! 이번 활동은 부담도 적고 즐거울 거라는 기대로 월요일 YMCA 건물로 향했다. 아침에 가자마자 회사의 Manager Co Thien 을 만났다. 그런데 웬걸! 우리는 여공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미싱도 돌리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일출 알았는데 사무실 같은 방에 산더미처럼 쌓인 옷의 실밥을 정리하라는 것이었다.(위 사진 세번째 참조) 아피들만 앉아서 일을 하고 있자니 심심하기도 하고 분명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러 이곳에 온 걸까 하는 고민까지 들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일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무엇보다 지루했다. 그래도 다행히 부 Manager Anh Vinh 과 Chu Chau 그리고 여공 친구들이 잠깐씩 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하루는 미싱도 돌릴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조그만 미니 가방 등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일주일 Công ty Hợp tác trẻ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이해 하기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어린 친구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항상 웃음으로 맞아주던 어린 친구들이 매일 얼마나 피곤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받은 사람인지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CLB. HUONG NGHIEP KHUYET TAT TRE

장애인 직업 학교(Vocational Orientational club for Disabled Youth)에서

2 주일 간 우리의 일정: -6/27 ~ 6/29 : 장애인 직업학교
-6/30 ~ 7/4 : 베트남 장애인 전국 체전 자원봉사
-7/5 : 하주 휴가!
-7/6 ~ 7/8 : 장애인 직업학교

1. 장애인 직업학교(Vocational Orientational club for Disabled Youth)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무료로 컴퓨터, 구슬공예, 심자수 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8명의 장애인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집안일을 담당하는 등 가족처럼 지내기도 한다.



- 우리가 했던 일? 1. 직업학교 체험 (심자수, 구슬공예 배우기)
2. 문화교류 (한국 노래 가르치기, 베트남 노래 배우기, 옷놀이)
3. 한국음식 대접 (함께 김밥 만들었어요)
4. 그냥 같이 들었어요 (이야기 하고, 동물원도 가고)

2. 베트남 장애인 전국 체전

우리의 활동기간 중에 베트남 장애인 전국 체전이 열렸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한국의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이 체전에 초대받아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회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 담당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 우리가 했던 일?
1. 선수들 일정에 맞추어서 호텔(선수숙소)로 출퇴근
 2. 경기장에서 갖가지 잡일, 간단한 용역
 3. 식사 때마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식당 종업원-선수 사이에 간단한 용역
 4. 베트남 기념품 쇼핑할 때 흥정담당



그냥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자원봉사자’로서만 일한다고 생각하며 시작했다. 그런데 선수들과 스텝들 모두 우리를 한 식구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회식자리도 함께 하며 맛있는 한국음식, 베트남식 해산물 요리도 실컷 먹었다. 마지막 날에는 선수들 비상식량으로 서울에서 공수해 온 라면, 과자, 고추장 등 남은 한국음식도 한보따리 안겨주셨다서울에서 꼭 보자는 말도 처음들을 때는 예의상하시는 말인가 했는데 자꾸 하시니 진짜인듯 하여 고맙다.

10월에 창원-진주에서 장애인 전국체전이 열린다는데 갈 수 있을까? ((

에피소드 1. 유치원 선생님들과 여행을 가다



4 월과 5 월이 지난 지금은 6 월, 유치원 활동이 끝나고 1 주일간의 활동정리 시간 겸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별다른 계획 없이 지난 활동 정리와 다음 달에 있을 활동준비밖에 할 것이 없던 우리에게 선생님들의 휴가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유치원이 위치해 있는 Dong Nai 주에서 버스로 약 3 시간 떨어져 있는 이곳은 Da Lat(달랏)이다. 남쪽의 열대기후와는 다르게 선선하고 때로는 춥기도 한 이곳에는 우유가 유명하고 선선한 기후 덕에 에어컨이 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열대기후에 하루하루를 헐떡이며 살던 우리에게 이곳의 찬바람은 정말 반가웠다. 그러나 이 여행에서 선선한 바람보다 더 좋았던 것은 선생님들과의 시간이었다. 매일 일 때문에 만나던 선생님들과 처음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며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선생님들과의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추억.



에피소드 2. 결혼식에 초대받다



선생님들과 여행을 다녀온 직후 우리가 향한 곳은 유치원 선생님 두 분 Co Lien 과 Co An 의 집이다. 이 분들의 자매 중 한 분의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식을 올리는 장소는 성당이었고 식후행사는 이 분들의 집 앞마당에서 크게 열렸다. 성당에는 가족 이외에는 초대 받지 않은 듯 보였는데 선뜻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하셔서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베트남인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비록 식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 뒤에 있었던 점심식사 및 잔치 또한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라온아띠 5기 베트남팀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아리랑 한 곡 올려드렸다.



에피소드 3. 오토바이와 냉장고를 공부하러!



활동과 활동 사이에 비는 2 일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철저한 우리의 코디네이터 짱은 호프스쿨(Truong Hy Vong)이라는 곳을 일정에 넣었다. 이 학교에는 연령대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오토바이,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많은 것들을 배운다. 대부분 집이 멀리 떨어져있어 합숙도 하며 지내는 이곳에 방문한 우리들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었기에 대화도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한 듯했다. 첫 날에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배우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오카리나 연주와 더불어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가르쳐주었다. 예상 이상의 반응으로 우리는 다 같이 재미있게 아리랑을 몇 번이고 반복해 불렀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공통점 하나에 우리는 마음으로 웃고 떠들며 서로의 인생을 나누었다.



에피소드 4. 국민은행 개점행사에 가다



호치민에 국민은행 지점이 이미 있는 줄 알고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여태 있던 곳은 은행이 아닌 사무실이었고 이번 6 월 말에 은행을 개점한다는 것. 연맹 사무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곳에 있는 국민은행 사무실에 연락 드렸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며 초대장까지 주셨다. 덕분에 초대받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은행 새 지점 Opening ceremony 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고 멋진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KB!** Best luck to the new branch!*

한국에서 만나요:)



the end